

# 사도 바울의 마지막 미션을 위탁받은 70인 제자 디모데 -복음으로 여는 디모데후서- 여호수아 1:5-8, 디모데후서 1:13-14

정운돈 목사님

\* **수1:5-8**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 **딤후1:13-14**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열두 가지 속에 담겨있는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237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을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제목과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3.9.3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은 성삼위 하나님이다. 9가 보좌의 축복 9가지다. 3초월, 3생명, 3전후후무다. 3초월은 보좌, 시공간, 237 빛을 의미하고, 3생명은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이다. 우리 인간은 흠이었는데 생기를 받으면서 다 회복되었다. 정신과 육신과 건강이 다 회복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말씀으로 마음과 영혼과 육신과 삶도 다 회복된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에 힘든데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육신과 경제와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회복된다.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개인은 행복하고, 그 개인이 가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에덴은 풍요로운 곳이다. 천국도 마찬가지다. 이것저것 힘들다고 하는 건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앙과 저주와 문제를 막는 길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 밖에 없다. 말씀이 없으면 재앙과 저주와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살게 된다. 나중에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인생이 괴로워진다. 만약 힘들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게 된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한다. 예배드리면서 그냥 말씀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부를 수가 없다. 답답한 순간에도 언약 잡고 내가 해야 할 작은 것들을 하면 길과 은혜가 보이게 된다. 70대가 40대, 50대 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결국에는 마음이다. 이제 100세 시대에는 평생을 현역으로 살라고 한다. 방법이 될까? 에덴으로 살아야한다. 지옥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고 생명이다. 영접해서 교회 가면 힘들고 교회 안 가면 찢려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의 맛을 보면 세상의 타락이 필요가 없어진다. 끝

오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된다.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이유로 성령충만해 그리스도에 올인하시기 바란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선물하시기 바란다. 3생명이 역사할 때 3전후후무가 나타난다. 나와 교회와 업에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3시대다. 이 생명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3시대를 살린다. 목회자는 70제자를 세워야한다. 많은 교회가 복음 없다. 중직자들은 70현장 살려야한다. 여러분들은 사업을 계속 구상해서 70곳에 영향을 줘야한다. 그러면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요즘 운동하면서 하나하나 망대를 세우고 있다. 어릴 때부터 Heavenly Talent를 찾아줘야 한다. 이제는 237문을 열고 준비해야한다. 70현장의 문을 계속 열 것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70분야를 찾아라. 그리스도로 유일성과 재창조의 문이 열리는 것은 당연하다. 부교역자와 램네티는 70나라의 그림을 그리면서 망대를 세워야한다. 이게 세계복음화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 후대들은 우리보다 더 잘해야 한다. 미리미리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 평생 애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저는 초등학교 때도 예배시간에 움직이거나 딴 짓하지 않았다. 램네티는 달아야한다. 그 모습 그대로 크다. 10년, 20년 된 친구 만나보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커 있다. 디모데도 연약한 부분이 많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다. 우리들도 모세와 사도 바울과 같은 스승이 되어야 하겠고 여호수아와 디모데와 같이 70현장과 237나라를 사실적으로 살리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이다. 70인 제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위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자였다. 여러분도 목사님이 여러분을 보고 중요한 일을 맡기려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교회 안의 다양한 분야 가운데 한 분야만 살리면 된다. 디모데는 연약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교회를 살리고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충성되게 담당하였다.

**1.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탁한 미션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 개인과 교회를 향한 많은 미션을 주고 있다.

(1) 첫 번째 미션이다. 1장 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대단한 미션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한다.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어떤 키가 작은 농구선수는 큰 키보다 강한 심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램네티는 핑계나 이유, 남 탓 대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 분간은 해야 하지만 핑계대거나 남 탓하면 안 된다. A라는 사람이 B, C, D, E, F와 싸웠다면 사실 A탓이다. 아무리 나쁜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 에덴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디모데 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령충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 편한 것만 찾고 안 된다고만 하면 안 된다. 위기에 도전하라고 하셨다. 이게 램네티의 삶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는 마음이 연약한 청년이라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들과 로마의 핍박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 같다. 디모데와 여호수아도 내성적이었지만 결국 다 했다. 또한 8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우리들은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다. 연약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하여 서도 다소 부끄러워했던 것 같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남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 충분히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않고 남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한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 볼 때는 이단이었다. 디모데는 그 이단 바울을 자세히 알아본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 결국은 복음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제가 큰 교회의 교사 강습회와 여름수련회를 다 가봤다. 분위기와 내용이 다 뜨거웠던 이전과 달라졌다. 다 없어졌다. 우리가 아니면 회복시킬 수 없다.

(2) 두 번째 미션은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강단메시지를 본

받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러 가지 바른 말들이 있다.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된다면 인도 받을 수 없다. 서밋이 될 수 없다. 여덟 가지가 틀리고 한두 가지가 맞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한다.

(3) ‘성령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복음전파와 선교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다. 우리들도 복음전파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복음과 관계되는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는 남는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시, 서예, 캘리그래피, 찬양, 복음영상, 전도컨텐츠 등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겠다. 앞으로 최고의 작품은 좋은 정치인과 지도자들이다. 모든 분야에서 항상 생각해야 한다. 무언가를 배울 때도 10년은 해야 초보를 면한다.

(4) 다음은 좀 특별한 미션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니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세상 살다보면 10중에 9명은 사기꾼이다.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그 사람도 능력이 없다 보니까 과장해야하고, 포장해야하고, 점점 돈을 쫓다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다. 내가 복음으로 기준을 가지면 악한 사람도 나를 돕는다. 내 안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악하게 하지 않는다. 나쁜 사람들도 착하고 좋은 일 하면 나쁘게 안 한다. 뭔가 내가 일확천금하려고 하고 사기꾼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사기꾼들과 악한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우리는 아무리 약해도 악한 사람처럼 될 수 없다. 우리는 양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야 한다. 부모님,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많은 이단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과 진실한 삶이 무엇인 줄을 잘 알아야 한다. 바울은 계속해서 미션을 준다. 목회자인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계속 미션을 주는 것이다. 2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했고, 2장 2절에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다. 이게 다락방이고 지교회다. 현장에는 매번 만나서 치유해줄 사람이 있고, 빨리 문 닫을 곳이 있다.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다. 충성된 자를 찾아야 한다. 그 제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전도현장에 가야한다. 2장 3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 중간에 보면 목회자는 말다툼을 하지 말고 엄히 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2장 15절에서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잔소리 같은 권면을 하고 있다. 제자일수록, 전도자일수록 잔소리와 권면을 많이 듣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2장 16절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2장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등이다.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구체적으로 다듬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3장과 4장을 통해서도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자세히 읽어 보시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란다. 읽고 인정만 해도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 2. 디모데후서에 담긴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찾아보겠다.

(1)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확실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장 9절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영세 전에 작정하시고 섭리하고 부르신 것이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지 않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정하셔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가져 주셨다.

(2) 1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1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라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 ‘드러내신지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부활을 증명해 주셨다는 의미이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창세기 3장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3) 2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겠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진리가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을 우리들은 항상 기억해야 하겠다. 이 복음이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다.

(4)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이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는 엄히 명하면서 하는 것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다. 4장 1절에서는 심판주 그리스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장 2절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한다. 우리 교회에는 굉장한 사명이 있다. 앞으로 3천 제자 만들고 성경적인 전도운동과 RUTC운동의 모델로 서야하는 교회다. 이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모델을 만들지 인도 받아야한다. 주역이 되시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말씀을 함께 보겠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신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감당한 바울은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디모데후서와 5력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한다. 오력이란 영적, 지적, 체력, 정력, 인력을 의미한다.

① 첫째는 영력이다. 디모데는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미션들을 받을 정도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절대체제자였다. 우리 램넛트들을 보면 신앙이 보여야한다. ‘저 램넛트에게 맡겨야겠다, 저 램넛트는 전도자가 되겠구나’하는 모습이 보여야한다. 램넛트가 오히려 가정을 치유하는 중인이 되기를 바란다.

② 두 번째는 지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에 마음이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달할 정도로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셨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하나님이 주신 Heavenly Talent를 찾으면 서밋이 되게 되어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저는 하나님이 계속 진학하게 하시면서 길을 막으셨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보니 하나님이 완벽한 길로 인도하셨다.

③ 세 번째는 체력이다. 디모데는 몸과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모든 사명과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힘을 주셨다. 할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힘을 주신다. 사명을 찾고 핑계대지 않아야한다.

④ 다음은 경제력이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와 로마와 세계 237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경제력을 주셨다.

⑤ 마지막으로 인력이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제자들을 붙여주셨다. 그 증거는 사도 바울이 사망한 후에도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위하여 바울과 디모데처럼 이 복음을 위탁받을 수 있고,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후서를 통해 말씀을 붙잡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세, 여호수아, 디모데,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